

지난 2000년 5월 개관한 영국 런던의 대표 갤러리 '테이트 모던'은 일반 미술관과는 사뭇 다르다. 전시실 곳곳에 H자 철제빔이 있고 전시관 내부에는 100m 가까이 되는 굴뚝이 우뚝 솟아 있다. 한 해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테이트 모던이 과거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런던 템스 강변의 '뱅크사이드'라는 화력발전소였다면 믿을까. 1980년 초 가동을 중단한 낡은 흥물의 화력발전소가 이제는 수많은 인파를 모으는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영국의 와핑 수력발전소를 개조한 '와핑 프로젝트'는 테이트 모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경우다. 와핑 프로젝트는 내부를 리모델링한 테이트 모던과 달리 예전의 수력 발전 장비를 그대로 둔 채 레스토랑과 갤러리를 열었고 이색적인 분위기 덕분에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몰리는 런던 문화의 중심이 됐다.

## ‘마포종점’ 노랫말에 나오는 당인리발전소를 아십니까.



김혜원  
아시아경제/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영국에 테이트 모던이 있다면 우리에게 당인리발전소(현 서울화력발전소)가 있다. 당인리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이자 서울 유일의 발전소다. 당인리발전소에도 2016년이면 도서관·박물관·공연장·전망대 등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부지를 활용해 지하에는 발전소를 짓고 지상은 홍대 문화권과 연계해 문화 시설을 만드는, 이른바 '문화창작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다. 재건축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6년여를 끌어오다 지난 9월 27일 드디어 첫 삽을 떴다. 당인리발전소는 어떻게 세워졌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당인리발전소의 역사는 83년여 전으로 시곗 바늘을 돌려야 한다. 지금의 이름은 서울화력발전소지만 본명은 당인리발전소다. 은방울자매가 부른 '마포종점' 가사에도 등장하는 당인리발전소는 서울 시민에게는 매우 친근한 존재다.

경성전기주식회사는 1930년 11월 28일 마포구 당인동 현 부지에 1만kW급 1호기를 준공했다. 당시 서대문에서 마포를 오갈 때 전차를 탔는데, 이 전차를 움직이는 전기가 바로 1호기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전력 수요가 늘어 1935년 10월 31일 1만2500kW급 2호기가 세워졌다. 이때부터 당인리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서울 밤거리를 화려하게 밝혔다.

설계 수명이 다 하면서 당인리발전소의 불은 하나 둘 꺼졌다. 아직 운영 중인 4·5호기는 두 차례에 걸쳐 수명 연장을 했지만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이 자리에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이름으로 새로운 화력발전소와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영국의 테이트 모던과 다른 점은 화력발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하 30m의 암반층까지 땅을 파 80만kW급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다. 지상에는 전체 터 11만8000m<sup>2</sup> 중 75%인 8만8350m<sup>2</sup>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형성된다. 당인리발전소의 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발전소와 문화공간이 한 건물 안에 공존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이 발전소는 전력 공급원으로서도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어 만성 전력난에 허덕이는 수도권 지역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 북부 지역은 지역 내 발전설비가 턱없이 부족해 전력 공급의 80%를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다. 또 열 공급 능력 확대로 마포 지역 약 3만 세대에 추가로 열 공급이 가능해 반포, 동부이촌동, 여의도 등 수도권 중심 지역 10만 세대에 열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꺼져가는 당인리발전소에 새로운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는 이번 사업은 총 공사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9월 당인리 발전소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새로운 복합문화·에너지 명소이자 명품 발전소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지 기대가 크다. 